건설사업관리(CM) 마인드를경영에접목

윤재호 삼표E&C(주) 건설부문 대표이사

"제조업은 기계가 하지만 건설은 사람이 합니다"

윤재호 삼표E&C 사장은 CM의 전도사로불린다. 그는10년전에 CM이 국내에본격도입되기훨씬전부터건설사업관리와인연을맺었다. CM 도입초창기에는 연구 모임과 단체 등을 조직해이 제도의 선진성과 활용성 등을 설파했다. 1990년 국내 최초로 'CM연구회'를 결성하였고, 1995년에는산·학·관주요인사로 구성된 한국CM간사회를 만들었다. 이 조직의 초대 회장인 그는 아직도 회장을 맡고있다.

"CM은 발주자를 대신해 기획에서 설계·시공·준공 이후까지 전체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대행해주는 업무입니다. 시공업체의 영역을 잠식한다는 인식으로 인해 아직까지 기대만큼 활성화되지는 않고있지만국내건설산업이선진화를이루기위해서는필수적인요소입니다."

윤재호 사장이 CM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은 1979년 현대건설이 수주한 이라크 북부철도공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만해도 세계 최대 규모였던 이 프로젝트에서 그는 선진철도의기술을익히기위해인접공사현장에 낯은 포복으로 접근하여 카메라로 커닝을 하다가 들켜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공정관리 기법인 PERT·CPM과 자원 투입의 최적화 공법(JIT) 등선진사업관리기법의노하우를체득할수있었다.

1991년에는 당시 현대건설 회장이었던 이명박전서울시장의지시로사업관리부를 맡게 되었다. 윤재호 사장은 사업관리부를 맡아 이끌었던 10년 간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1993년에는국내 최초로 윈도우 환경의 공정관리소프트웨어인 Pertwa를개발하고 표준 코드를 정립하였다. 또한, CM간사회 외에도 CM협회, 건설CALS협회를 창립하는데큰기여를하였다. 1996년에는요즘 화두가되고있는PMIS를구축하였다.

"무엇보다도 회사 내에 대학원을 개설하여 유능한 CM 석·박사 50여 명을 배출한 것에자긍심을느낍니다. 부서설립시3명이었던조직이그후3년뒤에는140명의막강군단이 되었지요. 민간 SOC 사업 중 가장 규모가컸던인천국제공항철도건설공사에 건설사업관리를도입한것도이러한맨파워가있어서가능한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현대건설에서 잘 나갔던 윤재호 사장은 이른바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 여파로 새로운 인생길을 걷게 되었다. 그의 표현을빌리자면' 고난의길'이다. 2002년 회사를 사직하고 CM 전문 기업에 입사했다. 하지만이곳의재직기간은1년반으로 끝이 났다. 일에 대한 신명이 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다가2004년삼표E&C의전신인강원산업에오면서그는 새로운전기를마련하였다. 바로그가평생축적해온CM 역량을 기업 경영에 접목할 기회가 온 것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제조업은 기계의 성능에 따라 생산성이 좌우되지만 건설업은 개인의경험과능력을바탕으로현장을관리하는것인만큼리더십이중요함을항상강조한다. 한마디로' 건설은 인간 위주의 산업활동'이라는것이다.

경영성과도크게나타났다. 2003년28억원에 그쳤던 수주액이 2004년에는1,009억원대로늘었고지난해에는적자에서흑자로 성장 모멘텀을 바꾸었다. 주력 사업인 철도궤도 부문 시공능력평가액순위도 1위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조직의 업무 분장과 업무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절차서, 코드, 문서의표준화 등을 이루어 나가는 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사업관리자로소 익힌 노하우를미래지향적인로드맵에융화시켜방향을 제시하자 자발적인 참여가 따르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종합건설회사로도약할것입니다."

이형우 · 기자 · hwlee@cerik.re.kr